

고대근동의 시각에서 본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에 대한 함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아다드-굽피,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안나의 삶을 기반으로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Religious Activities to Longevity in a Perspective
of the Ancient Near East: Based on the Lives of Adad-Guppi in the
Neo-Babylonian Empire, Daniel in the Old Testament, and Anna in the New
Testament

권순희, 이종근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Soon-Hee Kwon(soniakwon12@gmail.com), Jong-Keun Lee(cor155@naver.com)

요약

본 논문은 고대근동의 시각에서 본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의 함의에 대한 연구이다. 주요 자료원은 성서 밖의 신바빌로니아 제국 시대 월신교의 아다드-굽피의 기록, 고대 이스라엘 시대 유대교의 다니엘 기도문, 그리고 신약시대 기독교인 안나에 관한 기록들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최종 형태의 정경에 대한 공시적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아다드-굽피는 신전 중심의 금식과 같은 헌신, 민족을 위한 기도, 사명감 등으로 104세를 향수했다. 다니엘은 유대민족의 해방과 본국 귀환,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도시 복원을 위해 금식-기도하며 80대 후반까지 살았다. 안나는 늙은 과부로, 당대의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100세까지 장수했다. 본 논문은 이들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성전 중심의 삶, 금식, 기도, 시대적 사명감 등이 생의 의미 추구나 죽음에 대한 수용 등 노년기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장수는 시대나 지역을 초월한 인간 욕구이다. 본 고찰을 바탕으로, 종교생활의 영적 요인들이 장수에 실천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가 종교생활과 노화 등의 이슈에 대한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등의 성과를 수렴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써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아다드-굽피 | 다니엘 | 안나 | 종교생활 | 장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eligious activities to longevity in a perspective of religious people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major sources of the study are the records of Adad-Guppi in the Neo-Babylonian Empire, prayers of Daniel in the Old Testament and records of Anna in the New Testament. The research method is a synchronic method based on final forms of the texts. Adad-Guppi lived for 104 years with temple-centered lives, fasting-like dedication, prayer and mission for the nation. Daniel fasted and prayed for the return of Jewish nation, and restoration of the city and the temple in Jerusalem, resulting in longevity of late eighties in the court of Babylon. Anna lived for more than 100 years old with her life mission for the messiah in spite of limitations of her times as an old widow. The implications of religious activities with temple-centered lives, fasting, prayer, and mission for the ages are understood to be beneficial to longevity in a perspective of the ancient near east.

■ keyword : | Adad-Guppi | Daniel | Anna | Religious Activities | Longevity |

1. 서론

오늘날 건강 장수에 관한 담론으로 인생은 60부터, 또는 100세 건강론이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120세 건강론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1]. 이것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남자 81세, 여자 84인 현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 중 하나가 장수이다[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일부 종교활동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운동이나 영양, 및 스트레스 등이 건강에 미치는 사회학적 및 통계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학적 및 통계적 연구가 전무한 고대근동의 자료들을 통해 고대 종교의 종교생활이 건강장수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는 국내외의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세기에 걸친 고대근동학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고대근동 문헌과 성서의 이야기기를 접목시켜 장수 요소들을 살펴보는 최초의 시도인 점에서 또한 의미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문헌자료는 고대근동의 대표적 세 종교인 신앗시리아 제국(Neo-Assyrian empire, c. 901-609 BC)과 신바빌로니아 제국(Neo-Babylonian empire, 629-539 BC)의 월신교(月神敎, 달을 숭배하는 종교), 고대 이스라엘 구약의 종교였던 유대교, 신약의 기독교에서 각각 장수한 대표적 인물들에 관한 자료를 선택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대근동의 종교인들 중 장수에 관한 일부 자료들을 남겼고, 특히 이들은 국가와 시대적 격변기에 개인적 및 민족적 불행을 겪으면서도 각각의 종교생활에 충실한 삶을 산 공통점이 있다.

본 문헌자료의 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모친인 아다드-굽피(Adad-Guppi, 649-545 BC), 아다드-굽피와 동시대인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시대에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고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출신의 지혜자요 선각자인 다니엘(Daniel, 605-535 BC),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탄생 전후인 기원전과 기원후 인류 문명사의 전환기를 산 기독교의 여선지자 안나(Anna)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문제는 고대근동의 각기 다른 대표적 세 종교의 종교생활이 고대시대 개인들의 건강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고대시대 각 종교의 구체적 종교활동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한 개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로 최종 형태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사실성을 토대로 공시적 방법(synchronic method)으로 연구한다. 문헌수집의 범위는 월신교의 아다드-굽피의 경우 나보니두스의 하란 비문(Haran Inscription)에 나오는 「아다드-굽피 자서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다니엘의 자료는 구약성서의 다니엘 9-10장의 기도문, 그리고 안나의 경우는 신약성서 누가복음 2:36-37의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본 연구의 진실성은 아다드-굽피의 기도문도 고대시대 역사성이 인정되는 자료이고, 다니엘의 기도문이나 안나의 자료는 성서의 정경으로 인정되는 문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실성은 고대세계의 신화나 설화와 같은 가공적인 자료들이 아닌 역사적 자료들로 여겨지는 각 텍스트들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프레임은 고대근동의 희귀한 건강장수에 관한 자료들을 통해 각 종교의 주요 종교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각 종교활동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다. 셋째, 각 종교생활이 개인의 건강장수에 끼친 공통적 함의를 천착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건강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 바램이자, 특히 노년에 이럴수록 더 중요하고 절박해 진다. 따라서 인류의 최고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성서의 구약과 신약의 두 사례들과, 인류 문명의 요람인 수메르 시대(c. 2700-2300 BC) 이후 신앗시리아 제국과 신바빌로니아 제국까지 발흥했던 월신교의 두드러진 한 케이스를 통해 고대세계의 종교활동이 건강장수에 끼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고 보여진다. 특히 물질적 풍요와 여유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 시대에 절제와 경건한 영적 종교생활을 통한 건강장수에 관한 연구는 현대인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II. 종교생활의 배경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한다[3]. 보통은 필부의 삶이지만 세기적 전환기인 고난의 와중에서도 장수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인물들이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 원역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했다(창 8:3). 성서에서 장수 나이는 대략 70세 내지 80세를 기준으로 말한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라고 하면서 고대시대의 인생무상과 삶의 신속성을 노래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족장 삼대인 아브라함(175세, 창 25:7), 이삭(180세, 창 35:28) 및 야곱(147세, 창 47:28)과 비교할 때는 많이 단축된 연한이지만, 왕정기에 이르러서는 수명이 현저히 감소되어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여호야긴 왕까지 14대 왕들의 평균수명이 약 47세로 급감했다[4].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평균수명 100세 또는 120세라는 이야기는 다른 새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다.

고대 문헌 중 종교생활과 건강 담론에 빛을 줄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인류 여명기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는 장수 기록은 있지만, 모든 자료들이 온통 신화성이 농후하고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다[5]. 또한 성서의 창세기 5장과 11장의 홍수 전후 인물들의 평균 수명도 각각 대략 858년(홍수 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이지만 건강장수에 관한 자료는 전무하고, 홍수 후의 족장들의 수한도 317년(홍수 후 셋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이지만, 건강장수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대 문헌들 중 매우 제한적인 장수 기록들 중 각 종교의 시각에서 본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에 관한 족적을 일부 남긴 인물들을 주목했다. 성서 밖의 고대근동 종교인 월신교의 아다드-굽피, 성서 안의 구약의 유대교의 다니엘, 그리고 성서 안의 신약의 기독교의 대표적 인물로 안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대근동의 종교인들의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및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1. 아다드-굽피의 배경

기원전 7세기 신앗시리아 제국 말기는 격동의 세기였다. 아다드-굽피는 신앗시리아 제국에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세기적 패권이 옮겨지는 대 격변의 시대를 산 여인이다. 메대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연합전선으로 신앗시리아 제국의 수도들인 앗수르(614 BC)와 니스웨(612 BC)가 함락되자, 앗시리아 잔군은 시리아의 전략 요충지이자 제국의 마지막 수도인 하란으로 천도하여 이집트의 도움으로 제국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했다.

기원전 610년에 하란은 메대와 신바빌로니아 연합군의 공격으로 메대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기원전 609년 하란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다. 당시 아람족 배경의 하란 출신인 아다드-굽피는 하란의 수호신이자 만신전(pantheon)의 주신인 월신(月神)인 신(SIN, 이하 일반신과 구별되도록 대문자 표기함) 신전인 에홀홀(Ehulhul)의 여대사제(high priestess)였고[6], 그녀의 남편은 하란의 지혜로운 영주(領主, wise prince)인 나부-발랏수-이크(Nabu-balassu-iqbi)였다. 그녀의 남편은 바벨론에 의해 하란이 함락될 때 사망했다. 이로써 아다드-굽피의 삶에는 신앗시리아 제국의 몰락, 마지막 수도 하란의 함락, 자신이 섬기던 신전의 멸망 등 국가적 비운과 더불어 남편을 여의는 가정적 불행이 닥쳤다. 신바빌로니아 수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그녀는 고대근동을 제패했던 제국의 왕 느브갓네살의 총애받는 후궁으로 운명이 역전되었다. 그녀의 후원으로 아들 나보니두스도 왕궁에서 신임을 받게되고 드디어 느브갓네살의 딸 니토크리스와 결혼함으로써 왕의 사위가 되고 주요 국사를 맡았다. 여사제 신분이었던 아다드-굽피의 주 임무는 왕권을 받드는 것이었다. 긴 세월의 격랑을 넘어 그녀는 살아남았고 아들에게 월신교의 종교적 영향을 많이 미침으로써 신바빌로니아 제국 패망의 단초가 되었다. 나보니두스가 등극했을 때 그의 나이 60대였고, 아다드-굽피는 이미 95세였다. 아다드-굽피 자서전에 의하면 아다드-굽피는 9년을 더 살아 백수(이상을 향유했다고 한다)[7].

2. 다니엘의 배경

다니엘은 아다드-굽피와 동시대 인물이다. 다니엘서

의 저작을 기원전 6세기로 본다면, 다니엘은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메데-페르시아(Medeo-Persia Empire)의 권력의 중심부에 산 시대적 인물이다[8].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기원전 605년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에 신바빌로니아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제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다(단 1:1)[9]. 바벨론에 볼모로 잡혀가게 된 소년 다니엘은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하는 왕명을 거부하고 채식을 주장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3년 뒤 국가시험에서 그들은 다른 지식 계급의 사람들보다 매우 뛰어난 위용을 발휘했고 공직에 등용되었다(단 1:20)[10].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봉직한 왕실 측근들에 대해 「중세 아시리아 왕궁칙령(Middle Assyrian Palace Decrees/Harem Edicts)」을 근거해 볼 때 다니엘은 거세된 남자로 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왕하 20:18; 사 39:7). 이런 유배지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의 절망적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 및 성전이 멸망한 비운을 절감하고 살았다.

특히 다니엘 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인물이 고레스(Cyrus the Great, 559-530 BC)이다.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유배된 지 40여년 만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했을 때(558 BC), 이미 60대의 노인 다니엘은 성경의 예언을 주목했다.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고레스는 야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훼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인물로 약속되었기 때문이다(사44:26-45:1-7).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550 BC), 부국 리디아와 그리스 도서들을 제패하고(547 BC), 드디어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고대근동을 평정했다(사 45:1-3)[11].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고레스 신탁(사 45:1-8)과 70년 바벨론 포로(Babylonian exile) 예언 및 민족의 해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단 9:2; 렘 29:10-14) (Weinfeld, 1992). 바벨론 함락 직후, 다리오의 메데-페르시아 과도 제국 시절 다니엘이 수석 총리의 신분으로, 특히 사자굴에서 구출된 특이한 경험은 고레스 왕을 직접 알현하고 그에게 호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단 6:1-28) [12]. 다니엘은 친히 히브리어 성서 이사야 45장의 고레스에 관한 야훼의 신탁을 읽어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 다니엘의 설명으로 고레스는 그의 삶

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유대 민족을 해방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13].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후반이었다.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그의 나이가 18~20세이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 3주간의 금식기도를 하던 때의 나이는 대략 80대 후반의 고령이 된다. 1차 포로 시 다니엘의 나이에 대해 밀러(Miller)는 페르시아 왕궁 관습을 따라 14~15세로 보지만[14] 오히려 그는 10대 후반의 나이였다. 구약성서인 다니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왕실에서 봉사할 청년들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신체적으로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적 자질로는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단 1:4, 개역한글)하고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들(엘라딤, *yeladim*)”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칠 목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단 1:4)을 고려할 때 유배 당시의 그의 나이는 10대 중반보다는 대략 18~20세로 보인다. 40대 후반인 남왕국 유다 왕들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 80대 후반의 다니엘은 장수했다고 보여진다.

3. 안나의 배경

안나는 신약시대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를 맞이하여 그 분의 탄생을 선포하는 시대적 전령이었다. 그녀의 신분은 함무라비 법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대근동의 신전/성전에 부속되어 봉사했던 제의 전문가(cult personnel)에 속한 여성으로 보인다.

성서에서 참 과부는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자이다(딤후 5:5).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가 그 분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지라”고 약속했다(출 22:21-23). 외경 집회서(Ecclesiasticus / Wisdom of Jesus the Son of Sirach)에도 “그분은 고아의 간청을 흘리지 않으시고 과부의 억울한 호소를 모른 채하지 않으신다. 과부의 눈물이 두 뺨을 적실 때, 그 여자는 자기를 울린 자를 향하여 울부짖는다”(집회서 35:14-15, 공동번역)고 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약 5:16; 뱀전 3:1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중

인으로, 성서에서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기 때문에 (신 19:15; 요 15:26-27),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한 사람 시므온과 더불어 안나가 증언했다. 안나의 역할에 대해 남성 우위의 고대 상황에서 성서는 단지 몇 절에만 걸쳐 소개되었다. 그러나 성서 저자는 당대 사회의 주변인이었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신생공동체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15]. 또한 그녀는 고대 근동에서 탄원하는 여성의 오랜 존귀한 전승의 한 모델이기도 하다[16].

남편을 여의었던 과부들은 어느 시대나 대체로 외롭고 슬픈 삶을 살아야 했는데, 고대세계는 더욱 그러했다. 오늘날의 지식, 기술, 혹은 직업 등의 기회가 여성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분명 그녀는 여성으로 더구나 고령의 약자라는 불행한 신분에게 속했다.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 후 84년간 수절을 지켰다. 이러한 긴 고난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홀로 지내는 절망이나 슬픔을 종교적 신앙으로 극복하고 장수한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성경 전체에 걸쳐 몇 안 되는 여선지자로 언급된다. 여선지자로서 그녀는 평소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앞날의 위험을 경고하는 직분을 감당했다. 고대 조혼의 풍습을 따라 그녀가 14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하면, 성전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했던 때는 약 105세(14+7+84)의 고령이었다[17]. 안나가 이렇게 한 세기가 되도록 장수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위의 세 종교인들은 삶의 대 격량을 겪었음에도 건강장수의 산 증인들이다. 인간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강장수의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III. 종교생활에 관한 자료

1. 아다드-굽피 자료

아다드-굽피의 장수 관련 자료는 「아다드-굽피 자서전(The Adad-Guppi Autobiography)」이란 이름의

하란에서 1906년 포농(H. Pognon)에 의해 발굴된 두 개의 장레비문(Text H1A)의 내용을 말한다[18]. 이 비문은 북부 시리아의 하란에 있는 모스크(Great Mosque)의 계단 밑에서 발견되었는데, 원래는 나보니두스의 신전 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월신전 에홀홀에 있던 비문이었다. 비문 H1A와 H1B는 모두 나보니두스가 모친 아다드-굽피의 사후(545 BC)에 기록한 것이다. 자서전의 내용을 세 번역본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서론, 자전적 서술과 기도문, 기도 응답, 나보니두스를 위한 헌신, 그리고 훼손된 최종 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서론

나는 아다드-굽피, 나부나이드(Nabunaid)의 어머니, 바벨론의 왕, SIN의 예배자이며, 닌갈, 누스쿠(Nusku) 그리고 사다르누나(Sadarnunna)는 나의 신들이며, 그들의 신위(divinity)를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돌보았다.

1.2 자전적 서술과 기도문

바벨론의 왕 나보폴랏살의 16년에 신들의 왕인 SIN이 그의 도시와 그의 집에 대해 분노해서 하늘로 올라가 결과적으로 그 도시와 그 백성은 황폐하게 되었다. 그 때에 나는 그들의 신위를 공경했기 때문에 SIN, 닌갈, 누스쿠 그리고 사다르누나 신들의 신전들을 돌보았다. 나는 항상 신들의 왕인 SIN에게 기도했다. 나는 쉬지 않고 매일 그의 위대한 신위를 돌보았다. 나는 나의 평생 하늘과 땅 위에 있는 SIN, 샤마시, 이쉬타르 그리고 아다드(Adad) 신들의 예배자이다. 그들이 나에게 준 아름다운 예물들을 나는 날마다, 밤마다, 달마다, 매년마다 그들에게 돌려드렸다. 나는 SIN에게 계속적으로 간구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를 주목하며,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의 SIN과 나의 여신의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나는 좋은 양모, 은, 금의 의복을 입지 않고, 새 옷을 입지 않았다. 나는 좋은 기름의 향기를 나의 몸에 바르지 않게 했다. 나는 찢어진 옷을 입었다. 나의 옷은 베옷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공케했다.

앗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 20년에 내가 태어났고,

그의 재위 42년 동안, 그의 아들 앓수르-에틸루일리의 재위 3년, 나보폴랏살의 재위 21년, 느부갓네살의 재위 43년, 아벨-마르둑(Awel-Marduk)의 재위 2년, 네리글릿살의 재위 4년 - 95년 동안 나는 하늘과 땅의 신들의 왕인 신을 섬기고 그의 신위의 신전을 돌보았다. 그가 기쁨으로 나와 나의 선한 행위들을 내려 보았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승낙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분노가 진정되었다. 그가 그의 좋아하는 거처인 하란의 중심에 있는 SIN의 집인 에홀홀과 화해했다.

신들의 왕인 SIN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의 독자, 나의 후손인 나부나이드를 왕좌에 불렀다. 그가 이집트 국경에서 위 바다(upper sea), 아래 바다(lower sea)까지 모든 나라들,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권을 친히 주었다.

1.3 기도 응답

나의 꿈속에 신들의 왕인 SIN이 그의 손을 나에게 얹고 이렇게 말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란에 있는 거처로 나부나이드로 말미암아 신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가 에홀홀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그가 그 도시 하란을 이전보다 위대하게 완성하고 그것을 복원할 것이다. 그가 SIN, 닌갈, 누스쿠, 그리고 사다르누나를 에홀홀로 데리고 올 것이다.

SIN을 예배하고 그의 의복의 가장자리를 잡은 나에게 대한 사랑으로 모든 신들의 왕인 SIN이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것,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나(한 여인)에게 높은 지위와 그 나라에서 유명한 이름을 주었다. 그는 나의 삶에 많은 날과 행복의 연수를 더하고 나를 앓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때로부터 내가 낳은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 제9년까지 즉 104세까지 모든 신들의 왕인 SIN이 나의 마음에 심어준 경건한 중에 행복한 날을 살게 했다. 나의 시력이 내(생애의 마지막까지) 좋았고, 나의 청력도 특별히 좋았으며, 나의 손과 발이 건강하고, 나의 말은 잘 선택되었고, 음식과 음료도 나에게 맞았으며 나의 건강도 괜찮았고 나의 마음도 행복했다. 나는 4대까지 고손자들을 좋은 건강 상태에서 보았고 나의 노년을 향유했다.

1.4 나보니두스를 위한 헌신과 권고

바벨론의 왕 나보폴랏살이 21년 동안, 나보폴랏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43년, 그리고 바벨론의 왕 네리글릿살이 4년을 통치했다. 68년 동안 나는 공손하게 처신하며 그들을 섬겼다. 나는 나의 아들, 나의 후손 나보니두스를 나보폴랏살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왕 네리글릿살에게 소개했다. 밤낮 그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했다. 그가 나의 이름을 그들 앞에 좋게 세우고 그들은 내가 마치 그들의 딸, 그들의 친 자손처럼 나를 승진시켰다.

후에 그들(나보폴랏살, 느부갓네살, 그리고 네리글릿살)은 죽었다. 그들(왕들)이 승진시켜 재산과 재물을 증대시켰던 그들의 아들들이나 그들의 백성 혹은 그들의 고관들 중 어떤 이도 그들을 위해 향연을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 제 9년에 서거했다. 그녀의 자손, (그녀의) 아들,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가 그녀의 시신을 안장했다...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라에서 왕이나 왕자이든지 간에, 항상 신들의 왕이며 하늘과 땅의 신들의 주가 되시는 SIN을 주의하라.

2. 다니엘 자료

다니엘에 관한 자료는 구약성서 다니엘 9장과 10장의 기도문이다.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의 70년 포로 예언의 깨달음, 중보기도,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되어 있고, 10장은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한 은총의 기별로 되어 있다.

2.1 다니엘 9장의 기도문

(1) 깨달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2)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 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 하였나이다

(3) 기도응답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2.2 다니엘 10장의 기도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삼 년에 한 일이 벨트사살(Belteshazzar)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단 10:1-3,10-19).

3. 안나의 자료

안나에 관한 자료는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36-40절에 나오는 기록이 전부이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팔십 사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

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눅 2:36-40).

IV. 종교생활의 장수요인

세 대표적 인물들의 종교생활의 영적 요소들이 건강장수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아다드-굽피와 다니엘의 경우, 종교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근간인 민족과 국가의 멸망, 세 종교인들 모두는 개인적으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노예와 방불한 포로 신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인간이 절망하지 않고 종교생활로 신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메소포타미아의 보편적 정서였던 민족과 개인의 고난의 주요 원인인 신들의 운명결정(*Nam-tar*, Sumerian/*Shimtu*, Akkadian) 앞에 고뇌하지만[19] 불퇴진의 신앙으로 신 앞에 탄원하고 응답받는 종교의 본질을 보여준다. 세 문서들은 문화적 다양성이 있음에도 인간과 신의 합일(神人合一)로 구원과 신의 은총을 보여주는 면에서 고대근동 종교의 본질을 드러낸다. 종교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0]. 종교생활은 현재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19] 노인들의 종교생활 참여가 노인우울을 감소시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데 보탬이 된다[21]. 건강장수에 기여하는 종교생활의 영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전 관련된 경건

세 문서들 모두 각자의 신앙고백에 따른 신전/성전과 관련된 신앙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 아다드-굽피와 다니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인 신전과 성전이 훼파되고, 수도가 함락되며 민족과 국가가 패망했다.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아다드-굽피의 경우 가족의 불운이 있었지만, 신전의 회복을 위해 살았다. 다니엘도 본국 귀환과 성전을 바라보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단 6:10; 9:17). 안나도 과부 신세의 고난

을 넘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봉사한 삶을 통해 적어도 백수(白壽)를 향수하며 메시아의 출생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들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는 신전/성전이나 왕궁이었는데, 이러한 생활환경은 일반 민초들의 삶보다는 건강에 유익한 면도 있었다. 이들 모두 인고의 긴 세월을 살면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대근동에서 신전/성전 관련된 경건은 개인 생애의 초점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중심으로 산 것을 의미한다.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난제와 고뇌는 이러한 성전적 경험을 통해서 해소되었다(시 73:10; cf. 왕하 19:14-15; 욥 2:7). 성전 중심의 경건한 삶은 건강장수의 축복을 가져왔다(잠 10:27; 전 8:12-13)[22].

2. 금식의 효용성

금식은 동서고금을 통해 건강 증진의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각 종교마다 금식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23]. 성서에서 금식은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음식을 금하고 겸비와 애도, 죄의 고백과 회개 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구원을 탄원하는 경험을 말한다. 아다드-굽피가 기름이나 향을 바르지 않고, 찢어진 옷과 베옷을 입고 신들을 섬긴 것은 고대근동의 전형적인 금식의 모습이다(라이젠, 2001). 다니엘도 바벨론에 유배되어 거의 80대 후반의 노령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해방과 귀환 및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했다.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녀는 10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 특히 다니엘 금식(Biblical-based Daniel Fast)이라 불리는 금식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24]. 이사야서에서는 진정한 금식의 조건으로 종들을 해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義)의 증거로 강조된다(사 58:6-8). 특히 올바른 금식의 결과로 건강과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사 58:8; cf. 출 15:26; 시 103:3; 마 4:23-24; 벰전 2:24). 고대근동의 대표적 종교인들이 그들 각자의 지난(至難)한 삶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수한 모습은 금식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물론 금식과 더불어 마음 자세와 신앙심이 중요한 요소였다

고 보인다. 금식하고 절제하며 신과의 의미 있는 교제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켰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3. 기도생활

기도는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신/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성서에서 인간은 숨 쉬는 생명체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살전 5:17; cf. 삼상 12:23).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일이나 의식을 의미한다. 아다드-굽피는 무려 95년 간 쉬지 않고 신들에게 제의를 드리며 매일 밤낮 기도했다. 그 결과로 신들과의 화해, 아들 나보니두스의 왕위 등극, 그리고 건강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특히 노후에 이르기까지 시력과 청력이 좋고, 수족 활동이나 언어 및 섭생 등에서 건강한 삶을 향유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유배 대략 70년 동안 초기 채식 문제(단 1:8-9)부터 금신상 해석(단 2:17-18), 총리로서 하루 세 번의 기도(단 6:10-13), 70이레에 대한 작정 기도(단 9:3-4, 20-23), 말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기도(단 10:12) 등 일생 기도하는 삶을 통해 건강 장수를 누렸다. 그의 간절한 기도 등 헌신의 결과로 그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단 9:23)로 불리었고, 하늘의 축복이 두 차례나 더 주어졌다(단 10:11, 19). 이것은 곧 건강 증진으로 나타났다. 처음 기도할 때는 몸에 힘이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한 극한의 체험을 했지만(단 10:8), 기도를 통한 신적 만남을 통해 “깨닫고 일어서라”(단 10:11)는 분부대로 그는 건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단 10:18).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오토(Rudolf Otto)는 누미누스(*numinous*)라 불렀다[25]. 이런 만남은 전율, 위엄, 에너지, 및 신비의 경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건강이 증진됨을 보여준다. 안나의 경우 노령에 이르기까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무려 84년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했다. 그녀의 주요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초림을 알리는 성격의 봉사였다. 예루살렘의 구축 곧 민족과 국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메시아에 대해 증거했다. 그녀의 성전 중심의 경건, 금식과 기도하는 종교적 헌신은 뒤이

어 계속되는 성육신(incarnation) 하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에서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 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cf. 삼상 2:26; 눅 2:52)는 기록에서 체력, 지혜 및 영적 은혜 등 진인적 건강의 축복으로 귀결됨을 보여준다. 성서에서 기도는 장수의 요소이다(왕하 20:2,11; 시 21:4).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로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왕하 20:5; 대하 30:20; 사 19:22; 행 28:8). 기도는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6]. 특히 신약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고 약속했다. 고대근동의 세 인물들의 기도하는 삶은 건강과 장수를 가져왔다.

4. 사명감

아다드-굽피와 다니엘은 개인적 및 민족적 만남을 넘어 장수한 것은 시대적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믿음은 성서와 개인 경험, 및 역사의 증거에 기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에 따른 확신과 행동이다[27].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고 회자되듯이 개인이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된다(cf. 잠 29:18). 아다드-굽피는 남편이 살해되고, 자신이 여사제로 있던 에홀홀 신전이 파괴되며, 수십 년간 안녕을 위해 기도했던 신앗시리아 제국이 패망한 뒤에도 일어섰다. 그녀는 “쉬지 않고 매일... 날마다, 밤마다, 달마다, 매년” 신들과의 화해, 신들의 신전 복귀 및 아들의 왕위 등극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일관한 생애였고, 드디어 그녀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녀의 종교생활으로 개인적으로는 104세라는 건강장수를 향유했지만, 공동체적으로 제국 패망의 기초를 놓았다[26]. 다니엘의 경우도 소년기 느브갓네살 군대에 의해 포로가 되어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 파란만장한 삶의 정황에서도 그는 민족의 해방과 귀환, 그리고 성전의 복원이라는 시대정신과 대의(大義)를 위한 사명으로 살았다.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는 느브갓네살 왕

을 직접 대면하여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야훼의 신탁을 전했다(단 1:16-49; 3:13-30; 4:19-27; 5:10-31; 6:13-28). 또한 네 번에 걸쳐 죽음에 직면하는 위기를 겪었다(단 1:9; 2:11-13; 3:18-25; 6:16-24). 민족의 시대적 사명에 헌신한 그는 80대 후반의 노경에 이르는 장수를 누렸다. 마침내 장수했던 그의 인생길 마지막에 평안한 쉼과 영생부활을 약속받았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 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단 12:13). 안나의 경우도 사회의 약자인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조혼한 뒤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는 그 절망 중에서도 무려 80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살았다. 불행한 자신의 개인적 염려와 관심사에 함몰되지 않고 메시아 대망을 전하는 사명으로 초치일관 헌신했고 장수했다. 위의 종교인들은 신진/성전 중심의 경건, 금식으로 절제하며, 기도하고 시대적 사명감으로 일생을 살았다. 이러한 종교생활의 영적 요인들은 월신교, 유대교, 및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종교적 시각에서 볼 때 그것들이 건강장수의 축복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5. 종교생활과 노년 건강장수

삶의 과정 중 노년의 주요 관심사는 건강이다. 종교생활은 노년의 건강에 유익하고, 더 나아가 종교가 노년의 삶에 만족도와 행복감을 더하며 총체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다[28].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적 활동을 신장하는 것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로 사람(人)은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서로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즉 보이는 인간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사는 것이 사람의 됄됨이라고 보여진다.

아다드-굽피는 104세 생의 마지막까지 종교생활으로 행복을 누렸고, 시력과 청력도 좋았으며, 손과 발이 건강하고 언행심사도 괜찮았다. 섭생과 거동이 좋았고 노후를 향유했다고 고백했다. 다니엘도 노년에 그의 종교적 헌신으로 인한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과 평화의

신적 약속을 받았다. 노년기에는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쇠퇴로 인한 건강악화,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 인간관계의 소원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난다.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 또한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 46:4)고 약속한다. 고대세계의 세 종교인들이 그들의 일부 자전적 사례들처럼, 종교적 시각에서 볼 때 종교생활의 영적 요소들은 생의 의미 추구나 죽음에 대한 수용 등 노년기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근동의 종교인들이 종교적 시각에서 본 종교생활의 건강장수에 대한 함의이다. 연구대상으로 선택된 대표적 종교인들은 신앗시리아 제국의 월신교의 아다드-굽피, 남왕국 유다의 유대교의 다니엘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인 안나이다. 이들은 시대적 대 격변기에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난의 심연을 지났음에도 각자의 종교생활로 건강장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로, 각 자료들을 공시적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연구프레임은 고대근동의 각 종교의 주요 종교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건강장수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건강장수는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의 바램이자, 노년에 이를수록 이에 대한 필요는 저절로 실해진다. 오늘날 고대시대에 비해 물질적 풍요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폐, 시대적 우울과 불확실성 앞에 고뇌하는 현대인들에게 고대근동의 종교활동의 건강장수에 대한 함의는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 종교인들은 각자의 종교적 신앙고백에 따라 신전 및 성전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 아다드-굽피와 다니엘은 신전 및 성전이 훼손되고, 수도가 함

락되며 국가가 패망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아다드-굽피는 남편이 살해되는 가정의 비운을 겪었다. 양자 모두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신전과 성전 회복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 안나도 과부가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대망으로 살았다. 신전 및 성전 중심의 헌신된 삶은 건강장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해되었다.

둘째, 세 종교인들은 금식 관련된 삶을 살았다. 아다드-굽피도 금식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SIN에게 헌신했고, 다니엘은 두 번에 걸쳐 유대 민족의 해방과 성전 회복을 위해 특별 금식을 했다. 안나도 과부로서 그 긴 세월 동안 황폐된 삶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금식의 함의는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절제하며 겸손과 신의 얼굴을 구하는 최적의 방식으로서 장수한 삶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세 종교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기도는 인간이 신과 대화하는 것으로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된다. 아다드-굽피는 일생 쉬지 않고 신들에게 제의를 드리며 신들과의 화해, 그들의 신전복귀, 그리고 아들의 왕위 등극을 위해 기도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자신,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하고 죄 용서를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안나도 80여년 이상 메시아를 향해 기도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여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다. 기도의 함의는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유효하며 장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넷째, 대표적 종교인들은 고대 시대에서 개인적, 민족과 국가적, 또는 종교적 비운의 진창에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 시대적 대 격변과 천신만고 운명의 기로에서 끈질긴 종교생활로 인고의 세월을 넘어 건강장수의 귀감으로 기록을 남겼다. 종교생활의 사명감은 고대 종교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절망과 무력감이 시달리면서 불확실성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도 함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종교생활의 영적 요소들은 고대근동의 종교적 시각에서 건강장수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년기의 다양한 종교생활은 종교인들에게 건강장수에 기여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고대근동

종교인들의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에 관한 자료나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표적 종교인들의 자료들도 논리성을 뒷받침해 줄 문헌이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에 대한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취약한 면이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다루지 못한 고대근동 종교인들의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에 대한 종교학적 접근의 시도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종교생활과 노화 등의 이슈에 대해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등의 연구 성과를 수렴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된 한계들이 다루어져 종교생활과 건강장수에 대한 보다 실증적 방법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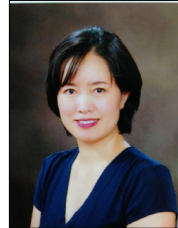
- [1] 이왕재, “유전자세포 분석해보면 인간수명 120세”, 고시계, 제51권, 제5호, pp.249-250, 2006.
- [2] 신정미, “120세 시대! 젊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즐기세포를 이용한 타임머신 타기”, Korean Industrial Chemistry News, 제15권, 제3호, pp.49-50, 2012.
- [3] 마르틴 하이데거(2009), *존재와 시간*, 전양범 역, 동서문화사, pp.224-230, 2011.
- [4] Edwin R.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pp.218-224, 1983.
- [5] James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6] Beaulieu and Paul-Alain, “King Nabonidus and Neo-Babylonian Empire,” *Civilizations of Ancient Near East*, edited by J.M. Sasson et al.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 [7] 이종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월신 종교정책”, 종교연구, 제62권, pp.335-336, pp.354-364, 2011.
- [8] Collins and John J. Daniel, *Hermeneia Ed. Frank Moore Cro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9] Victor H. Matthews and Don C. Benjamin, *Annals of Nebuchadnezzar II. In Old Testament Parallels: Laws and Stories from the Ancient Near East*, NY Paulist Press, pp.141-143, 1991.
- [10] C. Mervyn Maxwell, *God Cares*, Boise: Pacific Press Pub., pp.26-27, 1985.
- [11]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pp.200-201, 1998.
- [12] W. Shea, *Unrecognized vassal king of Babylon in the early Achaemenid period*, AUSS IX(1), pp.51-67, 1971.
- [13] Josephus, Flavius, *The Antiquities of the Jews in The Works of Josephus*, trans. William Whiston, new updated ed. Peabody: Hendrickson, 11.2. 1987.
- [14] Stephen Miller and R. Dani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8,” Eds. E. Ray Clendenen, Kenneth A. Mathews, and David S. Docke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 p.60, 2000.
- [15] Limberis, Vasiliki, Anna 2. *Women in Scripture*, Ed. Carol Meyers. Houghton Mifflin Company, pp.51, 2000.
- [16] van der Toorn, Kore, “The public image of the widow in ancient Israel,” *Between Poverty and the Pyre: Moments in the History of Widowhood*, pp.19-30, 1995.
- [17] Oppenheim, A. Leo, “*Ancient Mesopotam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18] Text H1A, 「아다드-굽피 자서전」, 하란의 회교사원(Great Mosque)에서 발굴, 1956.
- [19] Oppenheim, A. Leo, *Ancient Mesopotam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20] 강성봉, 조성숙, “노인의 종교생활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325, 2013.
- [21] 이은령, 강지혁, 정재필, “노인 우울에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90-300, 2013.
- [22] Johns, Loren L. “Unity and diversity in the canon: implications for the church,” *Vision* (Winnipeg, Man.), Vol.11, No.1 pp.74-83, 2010.
- [23] <http://en.wikipedia.org/wiki/Fasting>, 2014.
- [24] Trepanowski, John F. and Richard J Bloomer, “The impact of religious fasting on human health,” *Nutrition Journal*, pp.9:57-63, 2010.
- [25] Rudolf Otto, *The Idea of Holy: An Inquiry into the Non-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trans. W. Harvey, Oxford: Oxford Univ. Press, 1936.
- [26] M. antos and H. Kiat, “Prayer as medicine: how much have we learned?,”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86 Vol.10, No.21, pp.51-53, 2007.
- [27] Brown, Colin,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s, pp.595-605, 1981.
- [28] 김철진, “종교생활의 효과가 노인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pp.281-301, 2011.

저 자 소 개

권 순 희(Soon-Hee Kwon)

정회원



- 1987년 2월 : 상명대학교 지리학
과(이학사)
- 2002년 2월 : Xavier University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신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
과정

<관심분야> : 구약학, 구원론, 종교적 삶과 건강

이 중 근(Jong-Keun Lee)

정회원



- 1973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신학학사)
- 1988년 5월 : Harvard University
신학과(신학석사)
- 1993년 2월 : Boston University
신학과(신학박사)

▪ 1984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삼육
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관심분야> : 구약학, 고대근동학, 문화와 종교